



인터뷰

# 중국시장 전망을 듣는다

북경시 고점식품공업공사 매니저 까오뽀어(高波)씨

중국시장 전망은 밝다. 거대한 인구와 국토를 지니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최근 일원화된 환율제도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외국의 합작회사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베이커리 업체의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고려당이 북경시 당국과 합작회사인 「고려당 식품유한공사」 설립을 합의한 것을 비롯해 현재 가나안과 신라당이 중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베이커리 업체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지닌 중국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업체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외국업체의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이중환율이 최근에 일원화되었고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 환경이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베이커리 업체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고려당 식품유한공사」와 관련, 한국을 방문한 북경시 고점식품공업공사 매니저 겸 북경시 고점식품협회 회장인 까오뽀어(高波)씨를 만나 중국 시장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한국의 베이커리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또는 북경에 빵을 만드는 업체는 몇개 정도이며 외국기업의 진출은 어떤가

— 중국 전역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북경시에만 10여개 업체가 있다. 북경시 고점식품공업공사를 내가 관할하고 있는데 그 밑에 10개 생산업체가 소속돼 있는 상태다. 외국기업은 4~5개 정도로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홍콩이 진출해 있다. 그중 프랑스의 대마방(大磨坊)이 대표적인 업체다.

현재 중국의 패스트푸드 사업은 어떠한가.

—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은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빵을 즐겨 먹는 가정이 훨씬 많고 패스트푸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도 햄버거나 핫도그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들의 기호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인들은 어떤 종류의 빵을 좋아하는 편인가?

— 중국의 빵 산업이 조금은 뒤떨어져 생산

되는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까닭도 있고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빵을 좋아하는가 단정짓기 어렵다. 다만 단과자빵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며 성인들은 너무 단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소비 형태는 어떤가.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면 「고려당 식품유한공사」가 하게 될 호텔이나 백화점을 통한 판매 방식이 낫다고 보는가, 아니면 점포를 개설해 판매하는 것이 나은가

- 호텔이나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나으리라 본다. 자본주의 경제 일부 도입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호텔이나 대형 백화점을 찾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려당을 비롯해 몇개 업체가 중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절차나 형식,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중국은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제약이 별로 없다. 특별한 법적 절차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작할 대상을 찾고 서로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것으로 합자가 이루어진다. 현재 북경시에만도 타 분야까지 포함해 5천여개의 합작회사가 있을 정도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데 어느 지역이 유망하며 합자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측의 생산 인력의 공급은 원활하리라 보는가

- 중국 어느 곳이나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다 좋다고 본다. 인력 관계도 문제가 없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빵 시장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시 바랍니다.

- 빵에 대한 시장 전망은 무척 좋다. 외국 기업이 진출해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 낙관하는 것은 중국이 지닌 무한한 시장 잠재력과 투자 환경 변화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장 여건은 없다. 최근 들어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빵과자가 진열된 중국 제과점.

또 그동안 외국기업의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중국내 이중 환율이 일원화돼 투자 환경이 무척 좋아졌다. 외국기업과 화교들이 투자할 경우 세계상으로 많은 특혜가 있으며 여러 방면에 있어 정부의 지원 보조가 뒤따르고 있다.

끝으로 이번에 한국을 오게 된 목적과 본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고려당 식품유한공사」의 진척 사항에 대해 말해 달라.

- 고려당과의 성공적 합작과 기술 교류를 위해 왔다. 「고려당 식품유한공사」의 가동을 앞두고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려고 고려당 본사와 정읍·도안 공장을 둘러 봤다.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접촉은 작년 6월부터 있었다. 투자 비율은 50대 50이고 고려당에서

기술과 경영 지도에 대한 댓가로 일정비율의 로얄티를 받게 된다.

현재 국가의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이며 이번 방문에서 계약에 따른 결론을 도출했다. 빠르면 다음달에 북경에서 조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에 따른 설비가 완성 단계에 있으므로 오는 6월 정도에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주어 고맙다. 합작한 「고려당 식품유한공사」가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 고맙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바란다. 또 대한제과협회와 우리 북경시 고점식품협회의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져 양국의 제과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1]